

제목: 나를 알아가는 방법

[박경진]

제어계측공학전공 201822270, 강원대학교

이메일: rudw6531@naver.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들어가는 말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입시를 치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갈지 혹은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저희 학과 카톡방에 해외 단기 어학연수 공지를 보았고, 해외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비용을 마련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사람처럼 큰 목표가 아닌 저를 찾고 편안한 삶, 여유를 찾기 위해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키워드: #UVIC

연수대학 소개

캐나다 Uvic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연친화적인 학교입니다. 빅토리아 대학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로 줄여서 Uvic이라고도 부르며 학교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노루, 혹은 공작새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버스 종착역이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어 빅토리아 다운타운을 가는 경로가 굉장히 편하고 빅토리아의 여름 날씨가 굉장히 좋아 매일매일 선선하고 산뜻한 등교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이 끝나면 학교에서 도움을 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생활하면서 다치거나 약이 필요할 경우 부탁하면 간단한 의료용품을 지급해줍니다.

학교 클래스 수업의 첫주는 영어 클래스 지정하는 주여서 교수님들께서 스피킹 테스트랑 쓰기 테스트를 본 후에 자신에 맞는 영어 클래스를 결정되고 그에 맞게 수업하는 방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오전8:30분 부터 10:20분까지 첫번째 수업활동을 하고 2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10:40분부터 12:20분까지 두번째 수업활동을 한 다음 각 반을 담당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오후 활동을 설명 해줍니다. 활동 참여는 자율이며 활동을 참여 했을 시에 다른 국가의 사람

들과 어울려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재밌는 경험이 됩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근처에 산책길 혹은 바닷가가 굉장히 많아 각 장소마다 특색이 있어 여러 장소를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다운타운(시내)까지 버스타고 30분 정도 소요되며 다운타운에는 여러가지 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 일본 음식, 한국 음식, 피자, 펍, 그리고 기타 치는 사람 다양하게 많고 그 곳에는 소형 비행기와 요트가 많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후활동에는 햄버거 만들기, 접시 만들기, 다양한 나라 게임활동 참여해보기, 클라이밍, 농구, 축구, 영화보기, 밴쿠버 2박3일 다녀오기, 홀라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빅토리아시 밴쿠버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에 위치한 만큼 멋진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항구가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다녀온 여름에 평균온도는 22도이고 밴쿠버와 미국 시애틀의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각각 비행기로 30분 내의 편리한 교통편을 지니고 있어 여러 학생들이 계획 하기를 주말에 미국도 다녀오고 밴쿠버도 자유여행으로 다녀오는 일정을 많이 애용합니다.

본문

저는 남들과 다르게 거창한 목표 없이 저를 찾기 위해 어학연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달이란 시간이 짧을뿐더러 캐나다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 간 경우여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성장이 되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경험하게 되어 비록 영어 실력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되는 추억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밴쿠버에 도착하였을 때 감정은 불안감이었습니다. 호기롭게 가족들에게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저였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당시 빅토리아 대학교로 어떻게 가는지, 어떤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가 상상이 되지 않고 캐나다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기 전 알아본 얇은 지식으로 밴쿠버에서 빅토리아 다운타운까지 데려다주는 버스 패키지가 있어 종업원께 how much 만 되물으며 무작정 티켓을 구입하고 시간을 재확인하기 위해 what time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좋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 기숙사에 도착한 뒤로는 모든 것이 낯설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로 몇가지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실천하여 추억이 가득한 4주동안의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 저는 한국에서 빅토리아까지 와서 이전 한국 생활과 다르게 시도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저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이란 기간이 짧게 생각하면 짧은 일정이고 길다고 하면 긴 일정이며 이 기간동안 어차피 한 달인데 사람들과 거리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여 나만의 규칙들을 선정 하였습니다. 첫 번째 “웃음을 잃지 말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람과 어울리든 다른 나라 사람과 어울리든 공통으로 필요한 건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미소를 띄고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 덩달아 자신도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천해 보자고 생각하여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미소를 띄고 있으면 상대방도 저를 배려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청하는 자세를 갖자” 사람들은 외국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부푼 꿈을 가지고 외국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외국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먼저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도 저희를 배려 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표한다면 그들도 저희에게 맞추어 저희에게 표현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조건을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해도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저희와 생각이 다른 혹은 불친절한 사람도 똑같이 외국에 존재하니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신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순간을 즐기자!” 첫 장거리 여행이기도 하며 무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계획 일정에 같이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며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 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혹은 리더쉽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어디를 가든 긍정적인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첫째 주에 우연한 계기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과 빅토리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거대하고 풍경이 좋으며 자연 속에 내가 들어간 듯한 경험 겪을 수 있지만 제가 간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는 길이 험난하고 현지인분들도 많이 가지 않는 이름만 같은 캐나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길도 헤매고 저희가 가는 길에 야생 곰이 출몰한다고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도 듣기도 하고 거친 산행을 하며 뒤통지는 일행을 신경 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희망찬 응원을 하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위해 산행하였지만 결국 저희가 아는 유명한 폭포는 아녜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산행길을 오르며 불가능이란 없음을 깨닫고 같이 산행한 분들과 더욱 끈끈하게 뭉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 사람들의 인사말은 “ How are you today?”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변인을 신경 쓰지 않는 문화,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해외 사람들은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반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수업을 한 후에 오후 5시쯤 귀가하여 가족들과 2시간 정도 캐치볼이나 러닝, 혹은 운동 활동을 한 후에 7시에 저녁 식사를 1시간 30분 정도 가족들과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한 잡담을 한 다음 9시~10시쯤 숙면을 취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하루 일상을 들으니 한국 생활과 비교되며 가족들과 식사자리 혹은 각종 운동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니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고 캐나다 여행할 당시 배웠던 것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하루를 궁금하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면 뜻하지 않은 기회나 인연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주 동안의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일본인 친구, 한국인 친구, 멕시코 친구, 또한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스태프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상대방을 칭찬해 주며 지내니 많은 추억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이 내년에 한국에 꼭 방문한다고 약속하여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저희 클래스 교수님과 3년 뒤에 다시 캐나다에서 뵙겠다고 하여 일상 영어 회화 유튜브, 혹은 토익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영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지 못하지만, 꼭 미래에는 저 혼자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공부를 숙달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소한 말장난을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맺음말

끝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경험한 점은 분명히 제가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치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시도해 보고 여러가지 상황에 부딪혀 보면 크게 생각한 일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짧은 한달이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새로운 곳에 자신을 노출해 보시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깨닫는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